

월/요/광/장

하동만



중국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다극화된 세계 경제의 핵심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이면서도, 중국 발전의 핵심 연안지역과 가장 인접한 전남에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세계 제1의 해외투자, 해외관광 열풍을 한반도에서 가장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전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은 중국 연안 지역과 산업·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할 점이 많은데다, 중국 투자를 받아들일 준비도 어느 지역보다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

에게 매력적인 관광포인트가 많다. 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 공동 산업단지조성, 차이나시티 프로젝트 등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한·중 합작투자도 가시화되고 있고, 이들 사업은 양국 중앙정부도 지원하고

중국 투자유치, 소규모 관광사업부터

있다. 관광분야에서 중국의 선도 투자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산업분야로도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중 관광협력은 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양국 관광객들의 사소한 어려움을 풀어주는 소규모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전남을 중국의 대 한국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중국 관광객이 광주, 목포, 여수 등을 1차 여행 목적지로 삼고, 이곳을 통해서 국내 다른 지역을 관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자본이 직접 자국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음식점, 아웃렛 등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행사 간 합작투자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다. 중국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중국 자본이 직접 투자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음식, 숙박, 소림문제를 일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입에 맞는 음식이 없고, 숙박시설은 턱없이 비싸고,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소림 대상이 없어

여행비를 남겨 돌아가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한·중 관광기업 합작투자에 따른 이점은 더 있다. 합작투자를 하면 중국 측에서는 가능한 많은 관광객을 전남지역에 보내려고 할 것이고, 우리의 중국관광과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광합작투자로 쌓은 신뢰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돼 한 황해권의 초 광역 경제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물론 관광자원 개발 등 우리 전남이 준비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관

광 선진국들은 자국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인접국 국민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관광대국인 스페인, 프랑스는 외국인 관광객 중 인접국(EU) 관광객의 비중이 각각 93%, 87%인데 반해, 관광으로 상대적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은 70%대에 그친다. 우리나라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아시아 관광객이 73%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중국 관광객도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의 제1 투자국일 뿐 아니라, 작년에만 양국을 오간 관광객이 585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눈여겨보자.

인접국 관광객을 장기적으로 내실있게 유치하려면 국가간 협력투자가 가장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도 때때로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우리 관광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소규모 합작 투자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미래 한 황해경제권시대 전남지역이 중국인의 한반도 관광거점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비확보보다 중요한 내실있는 예산집행

광주시와 전남도의 2009년도 국고사업비가 올해보다 다소 늘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대목이 있던 해도 정권 교체 이후 노골화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구상 등 특정지역 밀어주기 분위기 속에 얻어낸 성과여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자치단체 관계자 등의 노고가 컸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최종확정된 내년 국비예산은 광주 1조6천492억원, 전남 5조8천912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3%, 12.7% 증액된 액수다. 광주는 광산업, 자동차산업, 문화산업 등 첨단과학과 문화산업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에 국비가 집중됐고, 전남은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와 호남고속철·영산강 뱃길 복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30건 1천500억원에 그쳤다. 광주태양광에너지개발사업, 고흥우주산업클러스터구축

등 상당수 숙원 사업이 누락됐다. 관련 부처의 반대와 수적인 열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보다 무려 68.2%나 급증한 울산 등 특정지역에 비해 광주·전남의 국비 증가율이 크게 저조한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다국 중요한 것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다. 사상 최저금리에도 돈이 돌지 않는 신용공해를 타개하고 실물경제를 되살리려면 대규모 재정투입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자치단체단위는 국비사업의 조기발주와 예산집행을 통해 최악의 지역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마구잡이로 국비를 받아와서는 사업 추진은 제 때 없거나, 합부부 예산을 낭비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비는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킬 때 지방자치는 건강해진다.

악플 테러 몰아낼 인터넷 선플달기운동

'선플운동 선언식'이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렸다. 선언식에는 초·중·고생과 교사들이 참가해 인터넷에서 선의(善意)의 댓글(리플)을 많이 달아서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를 대두한 악의적 댓글, 즉 '악플' 문제를 해소하자고 다짐했다.

우리의 인터넷 문화 수준은 양극성 성장과 반비례할 정도로 질적인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가 생길 만큼 댓글 문화의 저급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최진실씨가 자살한 후에도 악플이 올라 유족과 친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기부천사' 문근영씨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 동안 8억5천만원을 기부한 것까지 '빨치산 선전용'으로 매도한 것이 악플러들이다.

악플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광주 중·고생 10명 중 6~7명이 '악플'을 경험했다고 여론조사

에서 응답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악플이 '장난'을 넘어 인명까지 해치는 '테러'가 된 것이다.

선플달기운동은 악플에 대항하고 대체해 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비난과 유폐가 악플이 달린 특정 뉴스에 선플이 달리면 댓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선플달기운동본부는 이런 점에 착안해 각급 학교에서 선플달기 과제를 주고, 선플도 봉사점수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악플로 인한 유명인 자살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만 반짝하는 운동이 아닌, 항구적인 사이버 문화 자정 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모처럼 시작된 선플달기운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가정, 직장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 살기 쾌활할수록 한 줄 선한 댓글이, 한마디 듣기 좋은 말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無等鼓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소설은 '포드기원' 632년(서기 2540년)의 세상을 담고 있다. 서력기원을 갈아치운 '포드기원'은 헨리 포드가 'T형모텔' 자동차를 생산한 1908년을 기원 0원으로 삼고 있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포드기원' 141년(서기 2049년)에 터진 전쟁으로 기존 세계는 붕괴된다. 새롭게 건설된 세계 국가 국민들은 포드를 신으로 받든다.

십자군의 머리부분을 때어난 'T'가 사회 종교의 상징이다. '멋진 신세계'는 기계 문명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성 상실 시대를 풍자한다. 헉슬리는 기계문명사회의 출발점을 포드의 T형 모델이 세상에 나온 1908년으로 삼은 것이다.

포드는 1903년 '포드자동차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자동차는 호사자들의 소수주만방식이 주류였다. 그러나 포드는 달랐다. 그는 농부·노동자 등 중산층을 겨냥했다. 값싼 가격은 필수, 포드는 표준화와 일관생산이란 과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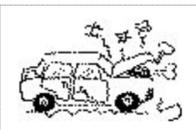
도입했다. 드디어 1908년 유명한 T형모텔이 시장에 나왔다. T형모텔은 바퀴가 크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비포장 도로에서도 잘달렸다. 고장이 나도 수리하기 쉬웠다. 색깔은 검정색 하나로 통일됐다. "고가차는 생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포드는 고임금과 저가자동차라는 양면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다.

포드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T형모텔에 만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의 변화를 외면한 포드는 단종 모델만을 고집하다 1920년대 중반 제너럴모터스(GM)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내놓고 말았다.

헉슬리식으로 따진다면 올해는 정확히 '포드기원 100년'이 되는 해다. 기계 문명의 상징인 포드제국이 100년을 넘기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포드는 달랐다. 그는 농부·노동자 등 중산층을 겨냥했다. 값싼 가격은 필수, 포드는 표준화와 일관생산이란 과격

/\*주승기기자jsoh@kwangju.co.kr

'포드기원' 100년



법조칼럼

이병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교도소에 수용중인 분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한층 더 마음이 무겁고 아픈 계절일 것이다. 최근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 새벽기도에 다니던 노모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 안타까움을 더한다.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피고인에게 알맞은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많은 이들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상 같은 형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형법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 성형, 생활환경, 피해

이러면 이미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일탈이기에 형상 조심하라는 뜻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범죄마다 일정한 기준을 세워 형을 정하기로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때로는 문체되는 사안마다 판사들 간의 토론을 통해 양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더 나아가 일정한 양형기준을 갖는 양형기준제를 만들어 양형 편차를 줄이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나로서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제가 판사들의 양형 편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형사

양형에 관한 판사의 고민

자에 대한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까지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는 개별 사건마다, 피고인 개인마다 그 사정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떠한 양형자료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느 정도나 유·불리에 참작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결국 판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사마다 양형기준이 다르고, 양형의 편차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때면 이러한 원칙론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판사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재판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판사의 가치관이 경형이 재판에 투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하나 그것이 사회 일반의 그것과 동떨어진 것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눈물 섞인 반성문이나,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이 담긴 탄원서를 많이 본다. 배고픔을 참기 어려울 돈을 훔쳤다는 피고인, 피고인의 구속으로 갈 곳이 없어졌다는 어린 자녀의 울음소리, 피고인의 범죄로 온 가족이 품바박산이 되었다는 피해자의 하소연 등 많은 사연을 보게 된다. 반면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 탓만 하는 피고인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되는 건 물론이지만, 판사로서도 그 모든 어려움이나 사정에 맞는 형벌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내가 온정주의 양형으로 형벌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는지, 반대로 가혹한 형벌로 새로운 장밋방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도 판결을 선고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김진수



일선 소방서에서는 위치추적 업무를 통해 여러 건의 긴급한 상황을 처리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위치추적은 자살 및 실종 등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방서(119)나 해양경찰(123)에서 신고를 접수해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올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천481건의 위치추적 요청 가운데 60%가 넘는 932건이 긴급구조 요청에 맞지 않은 신고 접수였다. 하루 평균 4건 이상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위치 추적 남발로 인한 소방력 손실

이중 긴급구조 요청을 충족한 사례는 549건으로 구조대가 직접 출동해 수색한 결과 199건(36%)은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조화에 실패했고,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144건(26%), 다른 유관기관이나 경찰에 인계한 사건이 81건(15%)이었다. 실제로 구조된 사례는 출동건수의 28건(5%)에 불과해 위치추적 성공률은 전체 신고건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는 소방관들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문제는 민원인들의 위치추적 남발로 인해 연간 2천여명이 넘는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있어, 진짜 도움이 손길 필요 순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치추적 신고접수 유형을 보면 부부 싸움이나 가출, 단순 연락두절, 정신질환 등과 같이 요건에 맞지 않은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 동부소방서 119 구조대장>

GPS 수신기가 탑재된 휴대전화를 휴대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다. 기지국 중심 반경 1~5Km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이름과 간단한 인식착의만으로 4~5명의 한정된 인원이 수색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해당기지국 주변 숙박업소나 점집, PC방 등을 수색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대상자 대부분이 가출이나 가정 불화 등과 같은 이유로 의도적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어 수색에 애로가 많다. '위치정보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4항에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인 위치정보 주체

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돼 위치정보가 조회되면 사고자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사고자가 의도적으로 몸을 숨긴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차량 이동중이라면 전파가 마지막으로 수신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해야해 대상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사실상 찾기가 불가능하다.

신고접수 대상도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이 규정한 후견인(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대상자가 긴박한 상황이라 고 주장하면 사고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다.

이렇듯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위치추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이 손길 필요할 이웃이 부작질한 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위치추적에 대해 바로 알고 신중한 신고를 부탁한다. <광주 동부소방서 119 구조대장>

암기 위주 예체능 대입 제도, 창의력 떨어뜨려

미술대 입시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 딸 아이를 보면 현행 입시제도가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미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고교 3년간 미술을 예술과 창조로써 하는 게 아니라 암기로 공부를 한다. 주입식 입시제도 탓이다. 입시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아그리빠의 소형 석고상 따위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다. 그것도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완벽하게 암기한 대로 빨리 그리느냐가 현재 한국 입시미술의 관건이다. 이런 미술만 하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창조성을 감조하는 교육에 제대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대학에 다니는 한

적응할 수밖에 없지만 창의성 있는 미술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외국은 다르다. 미술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연히 창작능력이 최우선 평가대상이다. 미술은 예술이기에, 기술적인 면보다는 창작능력에 대한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우리는 3년간 입시미술에 시달리다 갑작스레 창작능력을 키워야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진정한 예술과 창작 분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바꿨으면 한다. ▲유병화·광주시 북구 일곡동

우수고객 신용 대출 후 신용등급 낮추다니

요즘 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보면 화가 난다. 텔레마케터 상담원이 전화를 걸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로 "당신은 우량고객이니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객님은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며 연락을 해온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솔깃해진다. 그런데 우수고객 대상 신용대출을 증정한 은행이 대출받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다던 기분이 어떨까. 얼마전 보도를 통해 은행들이 우수고객 대출 마케팅으로 신용등급 받은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

척 화가 나고 불쾌했다. 신용이 좋아 신용대출을 해줄때 대출을 받으라고 해놓고 신용도를 내리는 건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은행들이 대출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게 당연하다. 신용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르고 나중에 진짜로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다가 하락한 신용도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었다면 이런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경우가 아닐까. 은행들이 편의주의로만 영업을 할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